

월요광장

기념하고 기억해야만 치유될 수 있다



강용주  
광주트라우마센터장

아르헨티나 심리사회연구센터 에이팁(EATIP, 영문명 The Argentina of Psychological Work and Research)에서 루실라 이레네 에델만(Lucila Irene Edelmann)박사가 광주트라우마센터가 주최하는 2014년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국제워크숍 참석을 위해 광주를 방문하였습니다.

에델만 박사가 몸담고 있는 에이팁은 1970년대 후반 군부독재 치하에서 학살당하고 실종당한 자식들을 위해 결성된 '오월광장 어머니회'를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시작해서, 1990년 지금의 심리사회 연구센터로 독립하였습니다.

30여 년 동안 국가폭력과 고문피해자

들을 위한 심리치료지원 및 정의를 향한 투쟁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에델만 박사는 오랜 기간 군부독재 하에서 집단적 학살과 실종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아르헨티나 경험에 비추어 '5·18'이나 '세월호' 같은 집단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치유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라고 말합니다.

특히 1996년 아르헨티나 정부의 불처벌에 맞선 투쟁을 소개하면서, 불처벌이 오래 지속될수록 피해자는 침묵과 죄의식에 휩싸여 장기적인 병리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국가의 의도적인 폭력은 '세월호'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든 집단적 트라우마가 발생한 뒤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과 정의'라고 강조합니다.

에델만 박사는 광주에 도착한 15일, 노란 리본을 달고 있는 세월호 침몰사건에 대한 의회공화국·소비에트공화국(인민공화국)으로,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민주적 공화국, 전체적 공화국으로 나뉘어 지기도 하였습니

다. 에델만 박사는 최근 한국 언론인이 교통

사고 사망자 수와 세월호 침몰로 인한 사망자 수를 비교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는 세월호 사건 유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현재의 트라우마를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길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그건 개별 외상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세월호 사건은 집단적 또는 사회적 외상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적 외상사건의 경우 개인적 치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치유과정의 잘 이루어져서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치유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광주에서 매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여 '납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는데 지금은 공식적인 기념행사에서 국가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에델만 박사는 트라우마는 개인적 트라우마와 사회적 트라우마가 상호작용하면서 치유되는데, 노래를 계속 불러오다가 급진적이나 부정당하게 되면 5·18민주화운동 등 마치 자신의 과거를 부정당하고 거부당하게 되어 치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치유는 자유에 대한 영구적인 싸움으로, 이것은 역사에 관한 것이든 사회적 담론이든 중요한 문제라고 말합니다.

"노래가 의미하는 것은 이들의 삶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노래를 못 부르게 하는 것은 현재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고, 또 다른 억압이다. 기념하거나 기억하는 것은 치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기념하는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치유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노래를 불러야 치유가 된다."고 박사는 힘주어 말합니다.

제대로 기념하거나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긍정적 치유로 작동하게 됩니다. 왜곡하는 것, 침묵하게 하는 것,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집단 트라우마의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외상을 입게 할 뿐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국가폭력 피해자를 치유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가 기억, 진실, 정의라고 합니다. 그건 우리사회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이나 집단을 치유하는 일이 아니라 역사와 사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에 서로 꼭 거머야만 하는 일입니다.

법조칼럼

정당의 이름과 선거



강부원  
법무법인 이우스 변호사

민주당과 공화당, 이 두 단어만 가지고 어느 당이 보수세력을 대변하는 당인지, 어느 당이 진보세력인지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주당이 개혁성향의 정당이고, 공화당이 보수성향의 정당입니다. 정치용어는 역사적 변천 과정을 거치면서 그 내용이 채워지기에 사용하는 용어만으로도 그 당의 색채가 드러납니다. 공화(共和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함께 화합하여 정부(政務)를 하는 것'으로 공화국이란 공화제(共和制)를 실시하는 국가이며, 역사적으로는 세습에 의한 군주제를 부정한 것에서 비롯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화국은 다시 정무를 누가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과두적(寡頭的) 공화국, 귀족적 공화국, 계급적 공화국, 민주적 공화국 등으로 나뉘어졌고, 권력형성의 사회적·정치적 조건에 따라 의회공화국·소비에트공화국(인민공화국)으로,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민주적 공화국, 전체적 공화국으로 나뉘어 지기도 하였습니

다. 이와 같이 '공화'라는 정치용어는 '민주'라는 용어보다 먼저 생겨난 단어이고, 그런 이유에서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보수적 색채를 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당정치가 이루어지는데, 한편으로 이러한 양당정치는 보수와 혁신의 대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당명 하나하나에는 역사가 반영되어 있고,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의도를 함축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 근래 사용되었거나 사용되는 우리나라의 정당의 이름은 새누리당,

한나라당, 열린우리당과 같이 그 정당의 역사적 가치 및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당명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나라 정당을 구성하고 있는 당원들의 스펙트럼에 따라 의회공화국·소비에트공화국(인민공화국)으로,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민주적 공화국, 전체적 공화국으로 나뉘어 지기도 하였습니

다. 이와 같이 '공화'라는 정치용어는 '민주'라는 용어보다 먼저 생겨난 단어이고, 그런 이유에서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보수적 색채를 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당정치가 이루어지는데, 한편으로 이러한 양당정치는 보수와 혁신의 대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당명 하나하나에는 역사가 반영되어 있고,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의도를 함축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 근래 사용되었거나 사용되는 우리나라의 정당의 이름은 새누리당,

저질렀던 기존의 정당이 정권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대표자를 뽑아 그들이 국민을 대신하여 화합하는 정치를 하는 국가이고, 대한민국에서는 늘 그랬듯 국민에게 더 좋은 가치를 선사하기 위해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의 이름에 보수와 혁신이 잘 드러나 있지 않더라도, 한 정당이 위 대립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에서 정치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정당은 지향하는 가치를 가진 색깔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는 요즘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정당이 지향하며, 사용하는 용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조금은 음미해 보고, 우리를 위해 내세웠던 약속을 잘 이행했는지, 이행하는지, 이행할 것인지 꼼꼼히 체크하여, 이를 선거에 반영시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잘 한 것은 칭찬함으로써 정기가 살아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 고

발명 선진국을 만들자



정기연  
전 영암 신복초등학교 교장

5월은 발명의 달이고 19일은 제49회 발명의 날이다. 발명의 날은 조선 시대 세종대왕 때 장영실이 세계최초로 측우기를 만든 날을 기념해 범국민적인 발명분위기 확산과 발명인의 의욕 향상을 도모하여 신기술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1957년 2월에 제19차 국무회의에서 제정되었으며, 1999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채택되었다.

발명이란 불편한 것을 개선하려는 데서부터 시작되며 편리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발명에는 자연 과학적 측면에서 새로운 발견을 만들어 내

는 발명도 있고, 사회 과학적 측면에서는 불편을 개선하여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과학적 새로운 제도와 방법의 개선을 위한 발명도 있다. 오늘날 우리가 문명사회에서 편리하게 사는 것은 수많은 발명가에 의해 이루어진 발명의 혜택을 받아 불편한 것을 없애고 편리한 것으로 발전하여 사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전국 과학전람회와 발명품전시회를 개최하여 발명에 대한 꿈을 길러주고 있으며 수많은 발명품이 선을 보이고 있다. 해마다 특허청에 발명특허 신청을 많이 하고 있으며, 대기업들의 연구소에서는 신제품 개발과 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과학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된 것이다. 올림픽경기가 같은 국제 경기에서 우승하는 것은 개인의 영광이고 국위의 선양도 되지만, 발명에서 세계적대만을 가는 것의 발명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 도움을 주며 발명의 결과는 인류의 편리한 문명생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 민족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창의력이 뛰어나 일찍이 금속활자 고려자

기 한글창제 거북선 제작 등 뛰어난 발명 기술을 보여 왔다. 그러나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직업의식은 공업을 천시해왔고 그로 말미암은 기술전수를 후계자에게 하지 않고 소멸하는 것이 많았다.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 외에 독창성도 보였지만 발명에도 관심이 높았으며 사회적 계층이 천민계층인 장영실의 창의력을 인정하고 발탁하여 벼슬을 주고 많은 발명을 하게 했던 능력주의의 인재등용 방법에 대해 본받아야 할 점이다.

발명은 불편한 점을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않고 편리하게 바꾸려는 노력에서 출발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발명의 소재가 되고, 그것을 탐구하다 보면 하나의 발명품이 되는 것이다. 발명의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다 보면 발명의 꿈은 이루어져서 훌륭한 발명품이 되는 것이다.

발명왕 에디슨은 수많은 발명을 하여 인류에게 유산으로 남겨 주고 갔다. 따라

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보람된 일을 한다는 것은 위대한 발명을 하여 인류 사회에 남겨 주는 것이며, 이것은 개인의 영광이며 국위를 향상하는 길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대열에 서게 된 것은 기초과학을 충실히 해온 과학 교육과 기업의 연구실에서 새로운 발명에 대한 꿈이 이루어져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편한 것이 있는 곳에 발명주제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직장에서 우리가 발명의 주제를 찾아낸다면 발명의 절반은 한 것이다. 발명의 주제가 선정된다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해결 방법은 그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발명의 꿈은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는 탐구하다 보면 하나의 발명품이 되는 것이다. 발명의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다 보면 발명의 꿈은 이루어져서 훌륭한 발명품이 되는 것이다.

경우에 아이들이 놀다가 추락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원인이 되고 있다.

아파트 통로에도 필요 없는 물건을 쌓아놓지 않도록 해서 통행에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함은 물론 이런 물건들로 인해 2차 추락사고가 나는것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 어른들이 별다른 생각 없이 쌓아놓는 물건 등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끔찍한 일은 당하지 않도록 조그만 것에서부터 어린이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김윤남·광주시 남구 방림1동

社說

결국 파행으로 끝난 5·18 34주년 기념식

5·18 광주민주화운동 34주년 기념식이 18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치러졌다.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34년 전 이곳 빛고를 광주에서 우리의 민주화가 위기에 처했을 때 광주시민 여러분이 높이 든 정의의 깃발은 민주화의 도도한 물결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5·18 주제인 유족들과 부상자, 5월 단체 등이 정부의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과 제창 거부에 반발해 기념식에 불참하면서 ‘반쪽 행사’로 전락했다. 5·18 단체가 별도의 기념식을 가진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대다수가 기념식을 거부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 2010년과 지난해 정부 행사와는 별도로 기념식을 열었다. 이번 34주년에는 5·18 행사를 주관하는 기념행사위원회가 기념식 불참과 보훈처 예산 반납 등을 선언하면서 결국 파행으로 끝난 것이다.

전과자에게 살림살이 맡길 순 없잖은가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주·전남 후보자 가운데 40% 이상이 전과자로 나타났다.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주민 대표를 맡겠다는 사람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전과자라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물론 민주화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긴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후보자 중 파렴치범들도 눈에 띈다.

광주·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입후보자는 광주 244명, 전남 755명 등 모두 999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 가운데 전과기록을 가진 후보자는 433명으로 43.4%에 이른다. 10명 중 4명은 한 건 이상의 전과가 있는 셈이다.

전과는 상당수가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일을 예사로 여겼다가 적발된 것이다. 당사자들로서는 술 좀 마시고 차를 모는 일이 별 대수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공직자의 기본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다.

특히 기념식에서 빈자리를 학생들과 보훈단체·보훈처 관계자, 경찰 등이 대신한다. 1인당 일당 5만 원을 주고 급조한 연합합창단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상당수 단원들은 ‘오월의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합창 경험에 없어 입조차 열지 못했다고 한다. 정부의 작태에 분노가 치민다.

게다가 기념식에서 진행된 5·18 경과 보고도 민주화운동 발발 배경과 계엄군의 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의도적인 축소 보고가 아니냐는 비판도 일었다.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을 계속 거부한다면 5·18 기념식은 파행이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민의 60% 이상이, 국회와 전국 각 자치단체 의회마저 찬성하는 기념곡 지정을 외면하는 것은 반민주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진정한 민주정부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윤여준 전 새정치연합 의장이 지난 3월 3일 광주를 찾았을 때의 일이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신당 창당형태로 통합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한국 정치사에서 당과 당끼리의 통합은 있었지만 신당 창당을 준비하던 창당준비위원회가 기존 정당과 통합한 것은 처음이었다. 곳곳에서 ‘흡수통합’이니, 심지어는 안철수의 ‘백기투항’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안철수의 멘토인 윤여준은 신당 창당 발표 전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런 상황 탓에 윤여준의 반응과 거취가 정치권의 관심사였다. 윤 의장은 광주에서 안철수 대표가 뒤늦게 알려준 것에 대해 서운하기보다는 어처구니없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안 대표를 ‘호랑이 굴에 들어간 사슴’이라고 표현했다.

윤 의장은 “일부에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민정당에 들어가는 것을 표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의) 정치 초년생이다. 뒤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던 것 같다. 새정치의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것으로 안다. 본인의 의욕과 의지를 나무랄 수는 없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아니다를까 현실정치는 쉽지 않았다. 공천과정에서의 잡음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기도 직접 챙긴 사람은 17개 광역시장과 도지사 후보 가운데 전라곡원한 광주뿐이다. 광주·전남 27개 기초단체장 중에서도 안 대표 사람은 2명에 불과하다.

현역 시장과 국회의원의 반발을 무릅쓰고 전라곡원한 광주시장 선거 판도 발표 전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런 상황 탓에 윤여준의 반응과 거취가 정치권의 관심사였다. 윤 의장은 광주에서 안철수 대표가 뒤늦게 알려준 것에 대해 서운하기보다는 어처구니없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안 대표를 ‘호랑이 굴에 들어간 사슴’이라고 표현했다.

윤 의장은 “일부에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민정당에 들어가는 것을 표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의) 정치 초년생이다. 뒤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던 것 같다. 새정치의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것으로 안다. 본인의 의욕

**호랑이굴에 온 사슴**

세도 승리를 장담할 상황이 아니다. 탈락한 유력 후보들이 단 일확을 통해 안 대표의 후보를 넘어 설 분위기다.

안 대표가 전라곡원한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다. 일부 반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다. 그는 전라곡원에 대해 광주 시민과 충분히 상의하지 못한 점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윤여준의 표현처럼 안 대표가 호랑이 굴에 찾아왔다. 유일한 전라곡원치인 광주에서 패할 경우 향후 정치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무방비한 사슴과 같은 신세다.

광주시민들이 호랑이 굴에 들어온 사슴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이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외벽 낮은 아파트 통로 상자·자전거 방치때 추락 위험

일반인들이 많이 찾는 PC방이나, 극장, 백화점, 기타 공용시설물의 복도에는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놓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 이유는 화재 등 비상사태피로를 막아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어린이들이 올라서서 놀다가 아래로 추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자전거를 많이 탄다. 그래서인지 유난히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를 내놓는 사

람들이 많은데 며칠 전 아파트에 사는 친구 집에 갔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다. 친구는 9층에 살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에 도착해 보니 집과 집 사이 비상구가 있는 계단쪽에 자전거가 놓여져 있었다.

하지만 내가 놀란 것은 한 아이가 그 자전거에 올라 앉아 창문을 연채 아래를 바라보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앞집 아이인듯 해서 그냥 위험하니

내려오라고 타이렀으나 들은척도 안했다. 친구 집에 들어가서 왜 위험하게 자전거를 복도에 놔뒀냐고 하자 친구는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며 앞집 자전거라고 알려졌다. 사람들의 안전불감증은 참 문제다.

아파트 계단 등지에 상자나 자전거, 신문 등을 방치해놓을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 외벽이 낮은 설치된 아파트는 5~6세 아이들의 키 높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이 많다. 여기에 상자나 자전거 등 물건이 방치되었을

<b>光 州 日 報</b>		<b>The Kwangju Ilbo</b>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申港樂</b> 편집국장 <b>奇賢鎭</b>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구독료 별도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 영 시 원 국 2200-515	문화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생 활 부 2200-661	< F A X 222-8005 >	< F A X 222-0195 >
정 치 부 2200-642	여 론 매 체 부 2200-696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 로젝 트 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b>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